

‘천사랑방’ 인사들, 교육청 요직 진입 논란

주도 의혹 교사 파견 공모 선발
캠프 출신 4급 보직 지원설까지
선거 개입·저서 논란 인사도 포함
교원단체 “보은 인사 중단” 촉구

(2-上) 취임 두 달을 맞은 전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1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이후 단행되는 개방형 직위 및 주요 보직 공모에 지난 선거 캠프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지원·선발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보은 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8일 전북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정책국장에게 ‘천사랑방’ 참여 인사가 임명된 데 이어, 정책기획과 파견교사 공모에도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 핵심 참모로 알려진 오모 교사가 최종 선발돼 오는 20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

오 교사는 지난 선거 당시 현직 교사 신분으로 ‘천사랑’이라는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며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천사랑방’ 논란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남호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사와 교장, 전북교육청 직원 등이 비밀 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전 후



“사학 채용 공공성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1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성민 기자>

보의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전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본격화 전 준비를 위한 대화방이었으며, 참여한 현직 교원들은 단순 정책 자문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사안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오 교사는 선거 과정에서 전 교육감 저서의 특정 항목이 오 교사가 과거 기고했던 글과 문단 구성 및 서

술 흐름이 흡사해 불거진 ‘저서 표절 및 대필 의혹’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불법 선거 개입 수사와 저서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선거 직후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 부서로 직행하자 교육 현장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25일 면접 심사가 예정된 4급(서기관급) 개방형 직위 선발에서도 선거 캠프 및 천 사랑방 관계자들의 입성 가능성이 짙어

지고 있다.

교육감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직에는 ‘천사랑방’ 참여 및 선거 캠프 출신으로 알려진 정모 씨가, 지자체 및 도의회의와 소통을 총괄하는 교육협력과장직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직 시의원 송모 씨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지원설이 파다한 상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인수위 전문위원이자 인사부서 파견 근무자가 장학

‘천사랑방’ 사전선거운동 의혹 전호성 전북교육감 피의자 조사

경찰, 17일 10시간 고강도 조사
사전선거운동·묵인·공모 추궁
핵심 측근 교사도 두 차례 소환

경찰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천사랑’을 통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9일 전북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교육감을 대체공휴일이었던 지난 17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였다.

전 교육감은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선거 기간 현직 교원 등이 다수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천사랑’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이를 묵인·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호성 도교육감

경찰은 이에 앞서 ‘천사랑방’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 현직 교사 A씨도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전 교육감과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교육감 측은 그동안 해당 대화방에 대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단순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공간이었을 뿐,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소환 조사 진술 내용을 정밀 대조하는 한편, 전 교육감과 A 교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돈은 세금, 채용은 입맛” 전북교육청 ‘눈치보기’

사립 교원 충원율 62% 급락에도
1차 3배수 축소안 사학 반발에 후퇴
전교조 “사학 전담부서 신설” 촉구

(2-下) 전북 도내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충원율이 60%대까지 급락하고 각종 인사 파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미루며 ‘사학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는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채용과 인사 등에서 공공성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 감사관실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 신설 등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충원율은 공립 위탁이 본격화된 2023학년도 94.2%(선발 86명 중 81명)에서 2024학년도 78.3%(157명 중 123명), 2025학

년도 64.8%(210명 중 136명), 2026학년도 62.3%(223명 중 139명)로 3년 새 31.9%p 급락했다. 올해의 경우 선발예정 인원 중 84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복수의 1차 시험 합격자가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자체 2·3차 전형에서 ‘적격자 없음’ 등을 이유로 최종 선발하지 않는 관행이 충원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실제로 한 학교법인의 보건 과목은 1명 모집에 5명이 1차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자를 단 1명도 뽑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2027학년도 1차 합격자 선발 규모를 기존 최대 5배수에서 3배수 이내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사학 법인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최대 5배수로 되돌렸다”며 “1차 시험의 객관성을 낮추고 학교법인의 자의적 선택 폭만 넓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실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 신설 및 현직 사립 교사 파견 배치 △1차 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방침 시행 및 미선발 법인 전수조사 △2차 전형 위탁 법인 인센티브 부여 △교원인사위원회 상시 점검 및 부당징계 반복 법인 특별감사 등

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모순을 둘러싼 비판은 교육계 전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 막대한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채용 단계는 법인의 배타적 재량에 맡겨져 ‘돈은 공적으로 대고 사람은 사적으로 뽑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립만 지원’ 전형을 폐지해 실질 경쟁률을 확보하고, 1차 3배수 선발과 함께 충남교육청처럼 2차 수업실연·심층면접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제도를 전북에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사학팀은 “1차 선발 배수는 2025~2027학년도에 전국 16개 시·도와 동일하게 5배수를 적용하고 2028학년도부터 3배수로 축소할 예정이며, 미선발 사유 제출 요구 등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립만 지원 전형 역시 지원자의 선택권에 따른 2차 응시 우선순위를 법인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농촌 활력·생활돌봄 공동체 확대 논의

농촌활력분과 제2차 회의 개최
농어촌활력재단 1월 출범 목표
읍·면 생활돌봄 공동체 육성

전북도는 19일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촌활력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과 신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 활력 제고의 구

심점 역할을 할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추진상황과 ‘농어촌 기본사회 기반 생활돌봄 공동체 육성’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현재 임원 구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돌봄 공동체는 농촌지역의 부족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 단위에서 의료기관 이동 지원, 장보기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7년 15개 읍·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농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JBTIP 전북테크노파크 JEONBUK TECHNOPARK

Environment

2026년 ESG 취약항목 개선활동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신규 지정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
- **지원분야**
ESG 역량진단 항목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
- **공고기간**
2026. 8. 14.(금) ~ 2026. 08. 2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 (www.jblc.or.kr)
- **문의사항**
기업성장지원팀 이호형 주임연구원 ☎ 063-219-2141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 총력전

정부, 올해 하반기 입지 검토 착수
2029년 개교 소재지 논의 본격화
도·남원시·전문가 실무협의체 가동
“지역·공공의료 양성 취지 살려야”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가 남원 유치를 위한 대응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반 시설·교육과정·운영체계·의무복무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추진 일정을 고려해 기반 시설과 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우선 가동된다. 기반 시설 분야는 소재지 선정과 설계·건축계획을, 교육과정 분야는 의학 교육 평가인증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입지와 기반 시설 검토에 착수하면서, 설립 지역 결정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도는 국립의전원이 단순한 의사 양성 기관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길러내는 기관인 만큼, 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곳에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원은 서남대 의과대학 폐교 이후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 유치를 꾸준히 준비해 온 지역이다. 도는 그간 쌓아온 정책적·사회적 공감대와 준비 기반을 근거로, 국립의전원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적지임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립의전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사진=남원시>

이에 도는 향후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국립의전원 교육과정과 실습체계, 의학 교육 평가인증 기준 등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 교육·임상실습이 도내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준비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도 가동 중이다. 도와 남원시, 의료·교육 분야 전문가

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부지와 교육과정, 임상실습체계, 지역 의료기관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의회와 정치권, 의료계·학계와도 접점을 넓혀 남원 설립의 당위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공유한 뒤 정부 및 설립준비위 논의에 대응할 지역 역량도 결집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최고위 비공개 공개 댄 지위 막론 퇴출”

“당원 선택 노선 명확히 추진
계파 없고 고려하지 않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9일 “(최고회의에서)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지도부 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장에서 열린 김대표 취임후 첫 부산최고위원회회에서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위원회회에서 대부분은 비공개되었다.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가 이같이 비공개 최고회의에 대해 퇴출은 언급한 것은 비공개되어야 할 주요 사안이 부정확하게 외부에 유출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의 공개 발언의 의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다”며 “논의 수준을 높이면서 최고위원회 의가 술선수범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민석 대표

앞서 김 대표는 “김민석 지도부는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라고 강조하면서 전대 과정에서의 갈등을 의식한 듯 “정청래지도부가 1인 1표 주권을 완성했다. 감사드리다”고 정 전 대표를 치켜 세웠다.

또 “노선을 명확하게 하겠다. 당원이 선택해준 노선으로 하겠다. 인사는 투명하게 하고, 능력주의로 하겠다”며 “하나하나 함께 힘을 맞춰가겠다. 화합을 중심으로 일하겠다.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며 전 대과정에서 갈라진 당심 수습 의지를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을지연습 드론 테러 대응 합동훈련...7개 기관 참여

도 대표 실제훈련 정읍시 실시
폭발물 제거·화재진압·구조 진행
도내 14개 시·군서 순차 실제훈련

전북도는 19일 정읍시 제2청사에서 2026년 을지연습 도 대표 실제훈련으로 드론 테러 발생 상황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정읍시, 전북경찰특공대, 35사단 공병대대, 제8098부대 3대대, 6단약장,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드론 전파 탐지·차단 장비와 구급차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은 정읍시 제2청사 상공에 적의 무인항공기(드론)가 출현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청사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대피·부상자 구조를 시작으로 ▲드론 탐지·무력화 ▲폭발물 안전검사 및 제거 ▲드론 운용자 대응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순으로 실제 상황처럼 이어졌다.

특히 경찰특공대는 RF스캐너를 활용해 폭발물을 탐제한 드론을 탐지하고 재밍 장비로 무력화했으며, 군 폭발물 처리인력이 자폭드론을 정밀 검사해 기폭장치를 제거했다. 또 군 경찰드론을 활용해 운용자 은신지역을 수색하고 기동타격대가 운용자를 제압하는 등 기관별 임무와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김광석 35사단장,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전북도 통합방위위원과 주요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19일 정읍시 제2청사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이원택 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도 통합방위위원과 주요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전북도>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실시되는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실제훈

련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한정에...‘탕평 인사’

정청래 지도부 정책위의장 출신
정책위의장엔 권칠승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신임 사무총장에 한정에(4선·서울강서병)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당내 정청래파와의 화합을 위한 탕평 인사로 풀이된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정에 의원

지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인사 배경에 대해 “능력을 우선한 인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홍보위원장에 김남준(조선·인천 계양을) 의원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엔 신정훈(3선·전남 나주화순) 의원을 각각 임명했고, 대변인에는 조계원(조선·전남 여수을), 이용우(조선·인천 서구을) 의원과 신현영 전 의원이 임명됐다.

/서울=김영목기자

박지원, 연계연금 환수 소멸시효 확대 추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안
국민·공무원·군인연금 기준 일원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계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



박지원 의원

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연금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하는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6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환수금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지역연금 역시 환수금을 징수·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각 지역연금 자체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이들 연금을 서로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의 환수금에 대해서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개정해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과 연계연금 간 환수기준을 일치시키고 연금제도 간 법적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

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 대해서도 개정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인데, 두 연금을 연계한 급여에 대해서만 3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일수록 작은 제도적 빈틈이나 불일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법

1 사용 전 주의사항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한다.



어린이 감전 예방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생활화하고, 멀티탭이나 전선 등은 가급적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한다.

3 전기 시설물 주의
장마나 호우로 비가 오는 날에는 가리의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포함한 야간 설비가 갑작스런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감전재해란?

사람이 전류에 접촉해 신체에 전기충격을 받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장애를 초래할수있으며 근육수축이나 의식상실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

전북농협인, 거제 호우피해 복구 ‘구슬땀’

대규모 피해 지역 찾아 토사 제거 및 침수 기자재 정리 등 일상생활 복귀 도와

지난 15일부터~18일 사이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최대 124.5mm 물폭탄이 쏟아졌다.

피해 규모는 △산사태 △지역 곳곳 토사유출 △도로 침수 △농작물 침수 등의 큰 피해가 이어지며 지역민 시름으로 다가왔다.

19일 김성훈 전북농협본부장은 대규모 피해로 울부짖는 경남지역 거제를

찾아 토사 제거 및 침수된 기자재 정리 등의 수해 피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 본부장 복구활동에는 전북농협 임직원 20여명 등이 동참하며 거제지역 농업인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힘을 보태겠다.

이 자리에서 김성훈 본부장은 “거제지역 농업인 아픔을 함께 나누자”며 “전북농협은 신속한 재해 피해 복구를 통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물폭탄 쏟아진 15일부터~18일 확인된 누적강수량은 △거제 968mm △통영 778mm 등으로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기록됐다.

/김영태 기자



19일 김성훈 전북농협본부장은 대규모 피해로 울부짖는 경남 거제를 찾아 토사 제거 및 침수된 기자재 정리 등의 수해 피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진=전북농협>



<사진=전북지방우정청>

동전주우체국-인구보건복지협회, 상생협력

임산부·태아 건강보장

지역 내 임산부 가정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지방우정청 동전주우체국(국장 최문순)은 19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회장 최찬욱)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우정서비스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정사업본부 대표 공익형 보험인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토대로 전주시 거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임신부 임신중독증 등 임신관련 질환, 태아 희귀질환 진단 보험금을 국가가 100%지원하는 공익보험으로서 임신부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원대상 임산부에 대한 ‘대한민국 엄마보험’ 안내 및 가입지원 협회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산부·예비부모 대상 공동홍보 협회 방문 고객대상 대한민국 엄마보험 및 우정서비스 안내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전북지방우정청은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우정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문순 동전주우체국장은 “우체국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수처리 기업, 인도서 1억800만달러 MOU성과

전북도-전북경진원 바이어 미팅 통·번역 등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EAW Global Aqua Expo 2026’에 전북 수처리 관련 기업 3개사가 참가해 총 38건, 1억941만달러 규모 수출상담과 5건, 1억800만달러 규모 MOU 체결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플라즈메이스, ㈜울림이엔티, 한삼코라㈜가 참가했으며, 경진원은 인도통상거점센터를 활용해 사전 바이어 발굴과 상담주선, 통역, 부스 및 물류 등을 지원하며 현지 시장 진출을 도왔다.

그 중, ㈜플라즈메이스는 친환경 플라즈마 수처리 장치로 15건, 1억800만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고 5건의 MOU를 체결하는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인도 현지 수처리·폐수처리 및 환경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플라즈마 기술의 처리

효율과 운영비용, 기존 UV·염소처리 방식 대비 장점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미국·캐나다·인도·호주 등 각 정부에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현지회사인 WWM과는 1억달러 규모 MOU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이어졌다.

(주)울림이엔티는 생물전기화학 기반 고농도 폐수처리장치를 선보여 12건, 141만9천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인도 현지기업과 수처리 및 환경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생물학적 처리 제품과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고 샘플 테스트 및 후속 미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삼코라㈜는 STS 라이닝 물탱크와 다중여과 입수관 등을 중심으로 1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인도 현지 정부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현지 정부 프로젝트에 제품을 포함하는 방안과 인도 시장에 맞춘 가격을 검토하는 등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 전시회 참가를 넘어 인도통상거점센터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바이어 발굴과 전시회 이후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된 ‘EAW Global Aqua Expo’에 전북 수처리 관련 기업이 참가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경진원>

후속 상담 지원이 실제 사업 협력으로 연결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진원은 전시회 이후에도 바이어와의 온라인 미팅, 통·번역 등을 지원하고 상담 및 MOU 기업의 계약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전시회를 통해 전북 기업의 수

처리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도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플라즈메이스의 MOU 성과뿐만 아니라 울림이엔티와 한삼코라의 현지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논의도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 혁신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청신호’

전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2개가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 평가를 통과하며 공공조달시장 진출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조달청이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이번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국 스카우터가 추천한 126개 제품 중 사전심사를 거친 30여 개 제품이 참여했다.

국민과 전문가가 공개 발표와 평가를 통해 공공현장 문제 해결 가능성과 기술 혁신성 등을 살폈다.

전북지역 스카우터가 추천한 5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이 데모데이를 통과해 평균 통과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 기업과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전문기관의 발굴 역량과 공공조달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6년 4월 17일 제정된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에 따른 기관·지역 스카우터 추천제품 우대가 처음 적용된 데모데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이 많다”며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스카우터와 협력을 강화해 숨은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제품 스카우터단 산업 현장에서 유망 기업과 제품을 발굴해 혁신제품 후보로 추천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정소민 기자

전국 수출 16개 시도 중 12위… 대미 비중 작년 12월 이후 첫 24%대 회복

전북 수출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전북 수출은 6억 8462만달러, 수입은 6억3877만달러, 무역역수지는 4585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 수출은 전국 수출 16개 시도 중

수출액 기준 12위에 올랐다. 같은 달 전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3.0% 증가한 989억5900만 달러, 수입은 26.5% 증가한 685억6700만 달러였다.

전북은 전국 수출 0.7%를 차지했다.

당월 전북의 대미 수출 비중은 24.3%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24%대를 회복했다.

철강관, 알루미늄 및 산업용 기계 등 주력 품목이 고르게 선전했다.

철강관의 경우, 미국의 높은 원유 생산 수준과 에너지용 강관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3466만 달러를 수출했다.

알루미늄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2% 증가한 1638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알루미늄 수입규제 강화로 현지 조달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내 영업망을 갖춘 도내 기업들이 수혜를 봤다.

산업용 기계의 대미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527% 오른 1605만 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따른 생산 설비 수요 증가가 도내 기업의 현지 판매 및 시장점유율 확대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중동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한 2674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아랍에미리트(2566% ↑)·시리아(1737% ↑)·오만(381% ↑)·알제리(219% ↑) 등에서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대중국 수출의 회복세가 본격화될지는 향후 수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박강표 본부장은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수출 7개월 연속 상승세

국립종자원 ‘씨마늘 불법 판매’ 집중단속

수입산 씨마늘 수입 판매 신고·생산 연도 품질표시 여부 등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농가 파종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8~9월) 기간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가을 파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 씨마늘 수입량을 전년대비 670톤으로 증가했지만 종자로서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 유통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진=국립종자원>

나타났다.

▷씨마늘 수입 증가 현황: (2025년 7월 1일~8월 10일) 72톤 → (2026년 7월 1일~8월 10일) 670.5톤

▷병장 보관 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장해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됨 이에 국립종자원은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

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자의 품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 유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건설협회 전북도회 ‘화재 피해지원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상인 화재피해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현재 소재철 회장 이하 765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건설업 상호협력증진과 지역건설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달된 피해지원금은 전주시송전동 농수산물센터 상인들의 삶의 터전 및 생계 안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피해지원금은 지난 18일 소재철 회장 및 관계자들이 조지훈 전주시장을 찾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지원금 마련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의 회원사들은 “갑작스런 화재에 의한 지역민 피해가 크다” 한 목소리를 내며 “모두가 행복한 일터에 조속

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위기 때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소재철 회장은 “화재 피해 상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 지원금을 통해 생계 안정과 시장복구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속내의 말을 전했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시기마다 솔선수범 나눔을 실천해 주는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와 회원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영태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2차 공공기관 전북 유치해야”

국가 균형발전·지역 인재 정착 강조… “금융·농생명·새만금 인프라 충분”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정부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금융과 농생명, 미래 첨단산업 분야 주요 기관의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전북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도시 기반과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새만금 미래 첨단제조 역량 등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전북이 새롭게 도약하고 국가 성장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180만 도민의 염원을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금융과 농생명, 미래 분야 등 주요 기관의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사진=부안군>

부안청자박물관 - 한양여대, 도자산업 협력

청년도예가 육성 협약 체결

부안청자박물관은 19일 한양여자대학교 세라믹디자인과(학과장 김동욱)와 청자 상감기법 전승 및 실무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도예 인재 유치와 전문 도예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동욱 세라믹디자인과 학과장 및 이동하·배용진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양여대 세라믹디자인과는 1974년 도자기공예과로 출발해 오랜 기간 도자 분야의 전문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도자 제작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교육과 현대적인 디자인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도자산업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물레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충분한

한 실습을 통해 도자 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전통을 기반으로 도자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여성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자 전문인력 양성 공동 협력사업 발굴, 도자산업 육성, 지역 청자 문화자원 공동 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 지역 도예가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안의 대표 문화자원인 상감청자를 활용한 지역 인구 유입과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이 청년 도예가들에게 창의적 실험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자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자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시 ‘스포츠 리본 협의회’ 본격 가동

전문가·단체·학계·시민 체육 새 방향 모색

익산시가 스포츠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체육 현장과 전문가, 시민의 지혜를 모은다.

익산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체육 분야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익산 스포츠 리본(Re:Born)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포츠 리본(Re:Born) 협의회’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아 익산 체육의 새

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 기존 스포츠 마케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수단과 방문객의 체류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체육 분야 전문가 3명, 체육 단체 5명, 학계 2명, 시민 4명, 행정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익산 체육의 현안을 살피고 정책 제안과 신규 과제 발굴, 기관·단체 간 협력 등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역할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익산의 스포츠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익산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스포츠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회 참가를 위해 익산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숙박과 음식점, 지역 상권 등을 연계하는 체류형 스포츠마케팅 전략도 모색했다.

시민을 위한 체육 정책도 함께 다뤘다.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엘리트 체육

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살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체육계와 시민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주필 체육진흥과장은 “스포츠는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익산만의 경쟁력 있는 스포츠 정책을 만들고,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활력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 일상 속 ‘문화배달’ 호응

예술인·수요처 맞춤형 공연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찾아가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2026 군산문화배달’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호응을 얻고 있다.

‘2026 군산문화배달’은 공연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예술인이 공연이 필요한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재단은 올해 총 18명의 예술인과 20곳의 수요처를 매칭해 수요처별 특성과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한 60분 내외의 맞춤형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을 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연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현장에서는 공연 횟수 확대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희망하는 의견도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산 시민 모두의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열심히 문화예술을 배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군산문화배달’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북현대·위사이클, 업사이클링 창업 캠프 성료

폐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

전북현대모터스FC와 ㈜위사이클이 전북권 대학생들과 함께 스포츠 현장의 폐자원을 상품화하는 ‘Drive Up(드라이브 업)’ 업사이클링 창업 캠프 2기를 마쳤다.

19일 전북현대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스포츠 폐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산학협력 프로젝트다.

기존 국립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에 이어 올해 전북대가 새로 합류하면서 총 5개 대학 10개 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관중 대상 환경 인식 및 굿즈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경

기장 내 폐자원 발생 현황을 점검하며 실무형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심사 결과 최종 우승은 경기장에서 실제 사용된 골망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전주대학교 ‘G.K팀’이 차지했다.

G.K팀의 아이디어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전북현대 오피스 스토어에 입점·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의 전액 지역 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우승팀 대표 김정현 학생은 “경기장에서 실제 사용된 골망을 활용해 전북 현대의 스토리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담고자 했다”며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남은 상품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9월 1일자 교원·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9일 ‘2026 학년도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4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유치원 20명, 초·중 36명 등 총 56명의 유·초·중 신규교사가 임명장을 받고 교직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봉천 강당에서는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장 12명을 비롯해 유·초·중등 교(원)장 58명, 교(원)감 65명, 교육전문직원 61명 등 184명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신규교사들에게 “아 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사진=전북교육청>

돕는 지원가가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역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강력한 엘니뇨의 경고: 역대급 폭염 속 ‘나’를 지키는 법

엘니뇨?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하는 기상 현상

기상청은 올해 강력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을 예보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대비, ‘물·그늘·휴식’과 ‘정보 확인’이 핵심입니다.

더 길고 뜨거워진 한반도의 여름

지난 30년간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6℃ 상승했으며, 여름 길이는 20일이나 길어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 활동 자제

폭염 특보 시 낮 12시~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멈추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세요.

물 자주 마시고 수시로 정보 확인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기상청 앱을 통해 실시간 폭염 특보를 확인하십시오.

정읍시, 폭염 취약계층에 모자·냉각패치·영양죽 지원

정읍시가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인인 과 장애인 1108명에게 햇별 차단 모자와 냉각패치, 영양죽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폭염 예방물품과 영양식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폭염 위험이 높은 시민으로,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선정됐다.

지원 물품은 여름철 야외활동 때 강한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챙 넓은 모자와 몸의 열을 식히는 냉각패치로 구성됐다. 무더위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죽도 함께 지원했다.

시는 이번 지원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만나는 생활문화의 즐거움… 라인댄스 경연

익산에서 라인댄스를 통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생활문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22일 배산체육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2026 전북 생활문화 라인댄스 경연대회’ 본선이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순수 아마추어 라인댄스 동호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팀별 개성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본선에서는 참가팀들이 음악에 맞춰 각 팀만의 안무와 호흡을 담은 공연을 펼친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등을 선정하며 수상팀에는 상장과 상패, 부상이 수여된다.

특히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만큼 시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며 라인댄스의 흥겨운 매력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라인댄스 동호인들의 활동과 교류를 넓히고, 시민들이 생활문화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AI 활용 청렴시책 추진 26일까지 ‘포스터 챌린지’ 진행

군산시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ON AI 챗봇’에 이어 ‘청렴 AI 포스터 공모전, AI 웹툰 및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직원들이 청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청렴ON 이름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청렴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ON AI 포스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정치·투명·공정 등 청렴의 가치,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내용, 청렴행정에 대한 의지 등이며, ‘청렴ON AI 포스터 챌린지’는 직원들이 직접 청렴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시는 직원들이 업무 중에도 쉽고 재미있게 청렴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청렴 웹툰도 제작·게시하고 있다.

또한 청사 1층 시정홍보관에는 청렴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을 송출해 직원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렴은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에서 기본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AI를 이용한 챗봇, 포스터, 웹툰 및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일자리정책’ 우수성 입증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최고 권위 포상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자리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군산시는 이번 성과로 4년 연속 수상과 함께, 시 최초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시는 ‘골목부터 산업까지, 민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도시 군산’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회복, 청년·여성·신종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주력산업의 고용안정과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을 연계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총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공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고용률은 68.1%로 전년 대비 3.3% 포인트 상승해 전북 도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5천 명 증가한 14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 지역 정착 지원 및 여성과 신종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일자리정책의 포용성을 높였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번 최우수상은 지역의 산업과 고용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성장 동력이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익산, 체류형 관광 활성화 2(題)

‘군산 국가유산야행’ 호응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수많은 인파를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2026 군산 국가유산야행’ 1주차의 열기에 힘입어,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2주차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1주차 야행에는 실관람객 약 10만 5천 명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외지 관광객 비율이 65.1%를 기록하고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54.5%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의 실제 인물·사건·장소를 활용해 ‘군산에서만 가능한 야행’으로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주변 상가·골목상권을 연계한 객주야장 등으로 행사장 소비가 원도심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마련한 결과이다.

1주차의 열기를 이어받아 펼쳐지는 2주차 야행에서는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문화와 생활상’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가무형유산의 백미로 꼽히는 ‘줄타기 공연’ △박물관 앞 공간에서 펼쳐지는 야간 체험 공간 ‘빛의 놀이터’ △행사장 전 권역에서 군산 국가유산 관련 게릴라 퀴즈로 진행되는 ‘모던 서프라이즈 퀴즈’ △친환경 재활용 소재인 양말목을 활용한 전통 가마니를 짜보는 ‘양말목 가마니 만들기’ 등 총 37개 프로그램이 원도심 일대 5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1주차 동안 보내주신 시민과 관광객들의 열렬한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2주차 역시 국가무형유산 줄타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군산만의 근대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형 타운마이스’ 본격 추진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민간 주도의 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산형 타운마이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타운마이스’는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이자 행사·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익산 원도심은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과 지역 상권, 문화공간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익산역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을 원도심 곳곳으로 이끌고, 관광을 체류와 소비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첫 일정으로 오는 중앙동에서 ‘익산역·중앙동 현장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한다. 공공·정책, 관광·마이스, 지역 상권,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따라 익산역과 중앙동 일대의 관광자원, 상업, 문화공간을 직접 둘러본다. 두 번째 현장 라운드테이블은 내달 17일 인화동 일원에서 열린다. 송리문화금고, 송리마을, 인화동 근대건축, 지역 카페를 비롯해 만경강과 춘포역 등 주변 관광자원까지 연계해 관광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발굴한다.

이윤리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원도심 곳곳에는 역사와 문화, 관광, 상권 등 경쟁력 있는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지역 위기대응 역량 강화

실전 같은 을지연습

유관기관 공조체계 점검

익산시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통해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시는 19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익산시를 비롯해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육군 35사단 익산대대, 제7557부대,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KT 익산지사 등 8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4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와 화재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테러 신고 접수와 인질 구출을 시작으로 드론 테러에 따른 화재 발생, 시민 대피와 화재 진압·인명구조, 전력·통신시설 긴급 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천처럼 점검했다.

먼저 익산경찰서와 육군 35사단 익산대대가 테러 현장 초동조치에 나섰으며, 제7557부대가 테러 진압과 인질 구출을 수행했다.

이어 미확인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익산시와 익산시도 시관리공단이 시민 대피를 진행하고, 익산소방서와 익산시보건소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와 KT가 피해를 입은 전력과 통신시설을 긴급 복구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테러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기관별 임무와 대응 절차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지역의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미국원불나방 확산 차단 ‘총력’

방제 안내 최신

정읍시가 8월부터 10월 초까지 피해를 주는 미국원불나방의 두 번째 발생 시기를 맞아 현장 점검과 방제 안내에 나선다.

미국원불나방은 북미에서 유입된 해충으로 보통 한 해 두 차례 발생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세대 애벌레는 8월 이후부터 10월 초까지 나무에 피해를 준다.

알에서 갓 깨어난 애벌레는 실을 뿜어 잎을 거미줄처럼 감싼 뒤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이후 어느 정도 자라면 주변으로 흩어져 잎맥만 남길 정도로 잎을 갉아 먹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가로수 주변과 농경지에 인접한 나무, 마을 주변 수목 등을 살펴 미국원불나방의 발생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행정부

지센터와 가로수 관리부서에 방제를 요청하고, 발생 지역에는 알맞은 방제 방법을 안내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국원불나방은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잎이 거미줄처럼 뭉쳐 있거나 애벌레가 무리 지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산불진화임도 평가 ‘최우수’

2027년 예산 추가 지원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임도 신설 사업 평가에서 도내 13개 시군 가운데 산불진화임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27년 사업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평가는 2025년에 새로 조성된 산림관리도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산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을 심사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노선 선정의 적절성과 주변 경관 훼손 최소화 여부, 재해 안전성, 산림사업 활용도, 비탈면과 노면의 안정성 등이다.

이번에 평가받은 칠보면 수정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 5m 인폭, 길이 1.8km 규모다. 식물을 심어 비탈면의 흩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

는 녹화 방식과 안정적인 도로 공사, 고른 노면 상태 등에서 시공 품질을 인정받았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 발생 때 진화인력과 차량이 산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로다. 평소에는 산림 관리에 활용되며,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을 막는 차단선 역할도 한다.

시는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수정리 일대 산불진화임도를 총 5.2km 길이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2027년 임도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임도가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돕는 기반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관리도 차량추락… 신속 안전조치

2차 사고 예방 나서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에서 추락한 1톤 화물차량에 대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2차 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5분께 관리도 항포구에서 그물을 옮겨신기 위해 주차해 둔 1톤 화물차량이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40대 차량 소유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군산해경은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잠수요원을 투입해 차량 위치 확인을 위한 수중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은 수심 약 4m에 수중 시야가 약 10cm에 불과해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반복 수색 끝에 오후 7시 29분께 추락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표시 부이를 설치하고 차량이 조류 등에 의해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사진=군산해경>

록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현장 확인 결과 차량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환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해상 추락 차량으로 인해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했다”며 “오늘 저녁 6~7시경 만조 시간 예정인 차량인양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주변 해역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자폭 무인기 공격 대응훈련

정읍시가 자폭형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청사에 폭발과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벌였다.

시는 19일 오후 3시 제2청사에서 ‘2026년 을지연습 연계 드론테러 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훈련으로 마련된 이날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원택 도지사, 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군과 경찰, 소방, 보건소, 정읍여성지원민방위대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적 특수작전부대가 자폭형 무인기로 제2청사를 공격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시작했다. 첫 번째 무인기 공격 직후 추가 무인기가 발견되자 청사 안에 있던 인원을 대피시키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린 뒤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추가 무인기의 작동을 멈추고

폭발물을 찾아 제거했다. 군은 정찰용으로 청사에 폭발과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벌였다.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고 옥상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했다. 보건 인력은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는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절차를 차례로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훈련인 만큼 실전과 같은 자세로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한 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황등도서관, 29일 ‘열린음악회’ 개최

익산 황등도서관이 책과 음악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오는 29일 황등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책갈피에 스민 열린음악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도서관을 책을 읽는 공간에서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숙한 음악으로 꾸며진다. 가곡과 동요, 가요, 영

화 삽입곡 등 다양한 장르의 선율을 선보이며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2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황등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가족, 이웃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여름날의 감성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고창, 인구감소대응 총력 2(題)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

김제시는 19일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7~2031)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근로인재의 지역 유출과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하고, 지평선산단과 특장차·농건설계, 스마트농업·농생명산업, 새만금 등 김제의 성장동력을 일자리와 정주, 생활서비스, 생활인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삶의 활력과 미래 성

장을 잇는 행복도시, 김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일자리·청년정착 강화 △농촌생활권 재생과 주거·교통 기반 확충 △전생애 생활서비스와 지역통합돌봄 강화 △생활인구·지역순환 확대 등 4대 전략 아래 16개 실천과제와 64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국·도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일자리·주거·돌봄·관광 등 분야별 사업이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인구 5만 지키기’ 캠페인

고창군 공음면이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고창인구 5만 지키기’ 및 ‘고창사랑 주소갓기’ 캠페인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공음면은 지난 12일 공음 쉼나무 어린이들과 함께 ‘고창인구 5만 지키기’ 및 ‘고창사랑 주소갓기’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주민행복센터 청사외벽에는 대형 세로 현수막을 게시

해 방문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캠페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직접 순회 방문해 본격적인 현장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전면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일자리대상’ 우수상 쾌거

청년·여성고용률, 상용근로자 수 역대 최고

부안군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과 전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전국 단위 시상식이다.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안특화일자리 플랫폼 구축,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 정책 운영,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있는 경제관광, 사람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청년고용률 50.1%, 여성고용률 75.2%, 상용근로자 수 7200명을 기록하며 주요 고용지표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부안특화 맞춤형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부안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농가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했으며 부안푸드엔레포츠타운 운영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과 기획생산농가 확대를 이끌었다.

청년분야에서는 전북 최초로 군비 1억원을 투입한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했고 청년 주거비 지원과 청년임대주택 조성, 청년특화주택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 기반도 강화했다. DH글로벌과 제3농공단지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환경 조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이끌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12.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6618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수소산업과 해상풍력, 관광산업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사진=부안군>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일제 폐장

‘무사고 해수욕장’ 실현

고창군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이 지난 18일 40일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유관 기관과의 빈틈없는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현장 관리에 나서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사고 해수욕장’을 실현해

냈다.

고창군은 폐장 이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오는 23일까지 연장 배치하고, 안전 안내 방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방침이다.

향후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을 즐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주변정리를 완

료하고 해수욕장 운영결과 평가회의를 개최해, 시설 보수·확장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영하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깨끗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해수욕장을 목표로 2027년 해수욕장 개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위생관리 역량 강화

김제시는 19일 보건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서영호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식중독의 이해 및 발생 현황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과 예방법 △개인위생관리 및 식재료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했다.

특히,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절차와 초기 대응 요령에 대해

서도 상세히 안내해 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교육에서 김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IC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고인돌·갯벌 등 형상화

고창군이 서해안고속도로 고창IC 진입도로에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징 경관조형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창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사업비 9억 45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조형물은 고창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과 갯벌, 해양생물 등을 형상화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제 고창에 들어섰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아간에도 조형물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조형물을 함께 설치해 시인성과 매력도를 끌어올렸다.

앞서 고창군은 흥덕면 제하사거리, 고창읍 솔재 등에도 고인돌과 갯벌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이색 조형물을 설치해 세계유산도시의 정체성을 끌어 올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고창IC 톨게이트에 군의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조형물을 조성해 차별화된 도시경관 이미지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고창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금구도서관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내달 10일까지

김제시 금구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자기 계발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금구도서관 아카데미’ 수강생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는 디지털 교육부터 감성적인 예술, 깊이 있는 인문학까지 시대적 트렌드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강좌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초와 활용, AI실용교육’ △그림책 속 메시지를 향기로 표현하는 ‘향기로 읽는 그림책’ △일상의 풍경을 직접 펜과 물감으로 담아내는 ‘어반스케치’ △그림책을 통해 인지 능력을 높이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니

어 인지발달 책놀이’ △다양한 분야를 탐구해 주제적인 취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AI 시대를 맞이하는 취향의 인문학’이 준비돼 있다.

이번강좌는 내달 14일부터 요일별 일정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금구도서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김제 디지털 시민증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배움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부안군, 주요 임도 전 구간 정비 완료

노후 벤치·정자 보수

부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숲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요 임도 전 구간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관내 임도 24개소 총 49.1km 구간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름철 무성하게 우거진 잡목과 잡초를 깔끔하게 정비하고 배수로와 안전시설을 전면 점검해 통행 안전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이 일대에서 체감할 수 있는 휴식 편의에 집중했다.

남고 색이 바른 벤치와 정자(퍼즐리) 등 휴게시설을 산뜻하게 도색·보수해 걷다가 언제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숲속쉼터로 단장했다.

실제 현재 계화산 임도 일원에는 분홍빛 배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새만금의 푸른 바다 전경과 붉은 배롱나무 꽃길이 어우러지면서 여름철 대표 인생샷 촬영 명소로 눈길을 끈다.

이번 정비로 주민들의 숲길 산책 재미가 한층 더해질 뿐만 아니라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활동에도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신성수 기자

고창군, 청소년 진로·문화 교류 캠프 성료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가 지난 14~16일 지역 청소년들과 국내 우수 대학 재학생들이 함께한 ‘진로·문화 교류 프로그램(꿈과 길 멘토링 캠프)’을 성황리에 마쳤다.

도·농 교류사업인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캠프는 ‘책이 있는 풍경(신림면 입전마을)’에서 고창지역 중학생과 서강대학교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진로·학습 멘토링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현실적인 조언과 응원을 주고받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교류 프로그램(꿈과 길 멘토링 캠프)을 성황리에 마쳤다.

도·농 교류사업인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캠프는 ‘책이 있는 풍경(신림면 입전마을)’에서 고창지역 중학생과 서강대학교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진로·학습 멘토링과 공

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현실적인 조언과 응원을 주고받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정재택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진로와 학습에 대한 고민을 털고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농촌마을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광복절 맞이 ‘대한독립만세 스탬프투어’ 성황

김제시는 아리랑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학마을과 죽산면 소재지 일원에서 진행한 벽아죽원(ONE) 8·15 SNS 챌린지 ‘대한독립만세 스탬프투어’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김제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문학마을과 죽산면 소재지에서 마련된 6개 거점을 순회하며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찍어 SNS에 게시하며 투어에 참여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관광객들의 참여가 활발해 현장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으며, SNS를 통한 인증 공유로 김제 관광지 홍보 효과도 더해졌다. 또한 전북도민뿐 아니라 서울, 수원, 전주, 김해, 청주 등 각지의 참여자들이 남긴 사진과 후기를 통해 김제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탬프투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김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문학마을 의제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김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광복절 맞이 ‘대한독립만세 스탬프투어’ 성황

김제시는 아리랑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학마을과 죽산면 소재지 일원에서 진행한 벽아죽원(ONE) 8·15 SNS 챌린지 ‘대한독립만세 스탬프투어’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김제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문학마을과 죽산면 소재지에서 마련된 6개 거점을 순회하며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찍어 SNS에 게시하며 투어에 참여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관광객들의 참여가 활발해 현장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으며, SNS를 통한 인증 공유로 김제 관광지 홍보 효과도 더해졌다. 또한 전북도민뿐 아니라 서울, 수원, 전주, 김해, 청주 등 각지의 참여자들이 남긴 사진과 후기를 통해 김제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탬프투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김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문학마을 의제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김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자봉센터, 임시터미널에 ‘폭염대비 안전쉼터’ 운영

고창군자원봉사센터가 오는 25일까지 고창임시터미널에서 군민 및 방문객을 위한 폭염대비 잠시 쉬어가는 시원한 안전쉼터를 운영한다.

쉼터에서는 얼음물,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부채 등을 제공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창은행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총사업비 500만원)으로 관내 환경미화원, 노인일자리 등 폭염에 취약한 곳에도 물품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전북은행 기탁금 전달식에는 센터 임·직원 및 자원봉사단체(고창사랑회, 대한어머니회 전북지구 고창지회, 고창군 새마을부녀회, 고창군 여성자원봉사회, 고창군 재향군인회, 인제상생반응요법회, 고창스포츠클럽 여성자원봉사단, 생활개선회 고창군연합회)가 참여해 민·관·단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김옥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전북은행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임원 및 단체에 감사하다”며 “안전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사랑애 쉼터 운영 간담회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19일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사랑애(愛)쉼터’ 하반기 운영을 앞두고, 치매예방관리사·활동보조 인력과 함께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하반기 ‘사랑애(愛)쉼터’ 운영 일정 안내 △쉼터 운영 관련 협조사항 전달 △쉼터 운영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사랑애(愛)쉼터’는 경증 치매 환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 단계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운영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원활한 쉼터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폭넓게 청취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하반기에도 ‘사랑애(愛)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늦더위 기승…현장 관리 강화 2(題)

순창군, 폭염 속 친환경농산물 안전 강화

순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각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농약 방제 작업이 집중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농가 지도 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해충 방제가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동방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제 관리에 나선 방침이다.

순창군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375ha에 달한다. 이

에 군은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 과정에서 농약이 인근 친환경 재배지역으로 날아드는 비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지와 관행 농지 사이에 완충구역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친환경 재배단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용 깃발 1,900여 개를 농가에 배부했다. 이를 통해 드론 방제 작업자가 친환경 재배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방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관리에도 힘쓴다. 군은 현장점검과 농가 지도 과정에서 폭염 시 농작업 안전수칙과 건강관리 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 총력

남원시보건소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한낮 늦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총 3,407명(사망 31명)이며, 전북에서는 212명(사망 6명)이 발생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인구 대비 온열질환 발생 위험과 추정 사망자가 논밭·길가·집 등에 집중됨에 따라, 남원시보건소는 여름철 시작부터 취약계층 중심의 촘촘한 예방 대응망을 가동해 왔다.

먼저,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남원의료원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온열질환 발생 상황

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 진료실 운영 의료가민 및 남원시 폭염TF팀과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환자 상태 파악과 추가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보건 인력 49명을 활용해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전화·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자제와 외출 최소화 등 예방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힘입어 남원시는 현재까지 관내 온열질환자 8명 모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막바지 늦더위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화성시와 농산물 직거래로 상생

직거래장터 수도권 판로 활용 화성송산포도 로컬푸드 첫선

완주군이 서울특별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손잡고 구축한 수도권 직거래 판로를 활용해 자매도시와의 상생협력 결실을 맺었다.

19일 완주군은 화성특례시 대표 농산물인 ‘송산포도’를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직거래 장터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번 출하는 완주군이 대도시 직거래 유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자매도시 간 교차 공급

망으로 확장하며 지자체 간 상생 모델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주군은 구축해 온 로컬푸드 판로와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수도권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화성특례시의 대표 농산물인 송산포도를 완주로컬푸드와 함께 수도권 소비시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모범적인 상생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순창군>

순창군, 대입제도 변화 맞춤형 입시전략 제시

2028 대입 대비 입시 설명회 고교학점제·내신 5등급제 안내

순창군이 지난 18일 (재)순창군육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주관으로 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극장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입시전문가인 김영일교육컨설팅 심형섭 본부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에

따른 학업관리 방향 △2028학년도 수능 및 대학전형의 주요 변화 △지역의사제 관련 입시환경과 진로 선택 시 고려사항 △농어촌전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시 준비 방법 △학년별 학습전략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입제도의 변화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전형과 지원 전략 분석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단순 입시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교과 성적과 진로, 희망 전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입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와 전략에 중점을 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사회성 키운다

지역아동센터 150명 대상 전개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적응도와

완주군이 배움과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용진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진·햇빛·모악엘피스·소양지역아동센터 아동 120명과 종사자 30명 등 총 150명이 함께하는 ‘2026년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사업’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참가 아동들은 단체 도미노 활동으로 역할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도미노가 쓰러지면 친구들과 다시 세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실패 부담을 줄이고, 서로 기다리고 격려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이를 통해 대화와 협력, 갈등 조정 등 또래 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다.

완주군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각자의 배움의 속도와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천천히 배우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아동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제10회 순창강천산배 유소년야구대회 ‘성황’

전국 127개팀 2900여명 참가

순창군이 전국 유소년 야구 꿈나무들의 열정과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팔덕다목적구장 등 순창군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도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 유소년 야구대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와 대회 인지도가 높아지며 순창을 대표하는 스포츠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전국 127개팀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 등 2,900여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로 치러졌다.

대규모 선수단과 가족들의 방문은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대회 기간 2,9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순창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경기 일정 전후로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선수단과 가족들이 지역에 머물며 숙박과 식사, 관광 등을 함께하면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수소에너지지고·우석대

지역 홀몸어르신에 과일 나눔

완주군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와 우석대학교 라이즈(RISE, 지역연계협력사업) 사업단이 폭염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 증진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손을 잡았다.

19일 수소에너지고는 완주 지역 내 10개 경로당에서 어르신 100여 명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건강! 완주 심바 비타민 과일 한 그릇’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홀몸 어르신의 온열질환 위험과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자 기획했다.

대량 구매 부담으로 과일 섭취가 어려운 1인 가구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 조각 과일과 과일 샐러드를 맞춤형 소포장 형태로 제공하며 필수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추진해 의미를 더했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일 가공과 포장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직접 과일을 전달하며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

또한 완주군청과 우석대학교 라이즈 사업단,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이어진 민·관·학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빙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천적 역량을 함양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자봉센터 ‘보이는 라디오’

문화 프로그램 성료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우리들의 라디오스타’ 현장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사연과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원불교 교당에서 원광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 아동·가족과 함께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어, 19일에는 도동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솔지역아동센터 아동·가족과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두 차례 행사에는 총 13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들의 라디오스타’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미리 보내온 감사와 응원, 격려의 사연을 DJ가 소개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됐다. 평소에는 속삭여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사연을 통해 전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다.

성일유엔아이 ‘가온누리봉사단’은 DJ로 나서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재능기부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아이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고 게임에 참여하며 가족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들도 봉사자로 참여해 팝콘과 미니 봉어빵, 수박화채를 직접 만들어 나누며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연계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삼례문화예술촌

소매점 신규 운영자 공개 모집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소매점(기법품점 40㎡) 신규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소매점(1층 근린생활시설)은 완주만의 정체성을 담은 특화 식품·잡화 판매와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완주군은 참신한 기획과 운영을 갖춘 사업자를 매개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인근 상권 활성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최고가 낙찰제 제한경쟁입찰로, 공고일 전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면 참여할 수 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개찰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진행된다. 자세한 입찰 공고 내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은 완주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온비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

8872개 창출·목표 111.2% 달성률 64세 이하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

남원시는 19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는 △전통과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신성장 일자리 창출 △남원 주력 일자리 기반 강화 △계층·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과 농촌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진=남원시>

특히, 남원형 퀵스타트사업, 국악 중심 남원 K-컬처 스팟 조성,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8,87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11.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64세 이하 고용률은 7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64세 이하 여성고용률 증가율은 전년 대비 4.7%, 청년고용률은 48.6%

를 기록해 두 지표 모두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이 머물고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도시 남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을지연습 일환 긴급 채혈 훈련 전개

전시 혈액 수급 전 과정 실전 점검 도·혈액원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완주군이 19일 ‘2026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 대량 상해자 발생에 대비한 ‘긴급 채혈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전개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원활한 혈액 수급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 채혈부터 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

훈련에는 완주군 보건소와 재난안전과,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훈련은 도지사의 긴급 채혈 명령 발령을 시작으로,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명부 생성과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채혈 대상자 소집, 명령서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접수 및 사전 문진, 적격자 대상 1유닛당 400cc 채혈, 채혈증서

교부, 혈액 수송 상자를 활용한 혈액원 인계 및 이송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다듬었다.

특히 훈련 도중 발생한 채혈 거부자에 대해 법적 명령과 비상 상황의 당위성을 설명해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돌발 상황 대응 훈련도 병행했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수제품

농특산품 등 선물세트 선봬

남원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감마켓’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공감마켓은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우수 제품을 시민과 공공기관에 알리고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우수 제품을 선물할 기회를 제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관심과 착한 소비를 끌어낼 계획이다.

사전 주문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정성껏 준비한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실속 있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다채롭게 선보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명절 선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과 공공기관은 ‘남원시사회적경제지원팀’ 블로그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상세 제품 목록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사전 주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 2일에는 참여기업의 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

는 직거래 현장 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상생을 다지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관내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해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공공구매 확대와 다각적 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노인복지센터-만리장성 어르신 '짜장데이' 나눔 행사

김제시는 지난 18일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남주)와 교월동 소재 중식 전문점 '만리장성'(대표 조상우)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짜장데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김산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만리장성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무료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공덕면·만경읍·백산면·청하면 어르신 144명을 대상으로 1차 나눔을 진행한 바 있다.

19일에는 김산동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차 나눔을 진행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산농협·우석대 한의과대학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 실시

완주군 고산농협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봉사단과 손잡고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에 나선다.

'농심(農心)이 곧 천심(天心)'이라는 이념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료 한방진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봉면과 동상면 관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드렸다.

진료 기간 동안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진과 학생 봉사단은 마을회관을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1:1맞춤형 한방 건강상담 △침 및 뜸치료 △무로 한약 처방 등 다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완주군보건소도 협진으로 참여해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등을 펼쳐 진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니어클럽 참여자, 쓰러진 이웃 생명 구했다

일자리 넘어 이웃 생명까지

정읍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단 '행복한 동행 I' 참여자가 홀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해당 참여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정우면에 사는 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 홀로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참여자는 즉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어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 덕분에 쓰러진 어르신은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참여자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대를 안내한 덕분에 환자를 빠르게 이송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에 놓인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오산면지사협 취약계층 70가구에 반찬 전달

익산시 오산면 주민들이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

오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정자·이미란)는 19일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70가구를 대상으로 '맛있는 집 반찬' 특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사업에는 오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삼계탕, 김치, 젓갈, 제철 과일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폭염 속 주저환경과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용진농협,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금 전달

아동 2명에 각 400만원 지원

용진농협(조합장 이종진)과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지난 18일 농촌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치료를 돕기 위한 '2026년 도농상생 희망이음 의료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의 미성년 자녀 가운데 질병 치료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용진농협은 지역 내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 추천했으며, 추천 아동 2명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1인당 4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종진 조합장은 "자녀의 치료기간 이어질 경우 농촌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의료지원금이 두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원예농협,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익산시는 19일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이 시청을 찾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익산사랑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중·고·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익산 출신 대학생의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된다.

익산원예농협은 농산물 공판장과 익산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김봉학 조합장은 "시민과 함께 여는 익산 대전환을 위해 우리 원협도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인월면 '홍부네 곳간'에 쌀 나눔 이어져

남원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오미자)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홍부네 곳간 나눔'에는 영월사에서 백미 300kg을 기탁한 데 이어 김지수이장(내건마을200kg), 김재중이장(하우마을200kg), 김종삼이장(취암마을130kg)의 기부로 총 830kg의 백미가 마련됐다.

특히 홍부네 곳간의 쌀이 소진

되어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김지수 이장은 다시 100kg의 쌀을 추가로 기탁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기탁된 쌀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도움이 필요한 160가구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탁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학복 기자

사회적기업 드림인공존 고창 경로당에 실내용벤치 등 기탁

사회적기업 드림인공존(대표 김대식)이 고창군 아산면 경로당에 실내용 벤치 3개와 타일액자 3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탁은 아산면 중월리 출신의 출향인인 김대식 대표가 고향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보답의 의미를 담아 진행한 것으로, 고향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실내용 벤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랜시간 의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의 관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일액자는 경로당 내부를 더욱 화사하고 따뜻하게 꾸며줄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결론

정민제 군
정영득 전주비전대교수, 김복희(전 우림중교사) 장남
홍윤희 양
홍성익, 김성희 장녀

일시 : 8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장소 :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서초구 신반포) 5층 그랜드볼룸



〈一事一言〉



교육감이 누구든, 감시의 잣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진영 따라 무더진 비판의 날
‘원칙과 일관성’을 묻는다

교육 행정을 견제하고 교권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원단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도덕적 정당성’과 ‘원칙의 일관성’이다. 비판의 기준이 선명하고 공정할 때 비로소 그 목소리는 교육청의 독주를 막는 제동이자 교육 현장을 바꾸는 힘을 얻는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단체가 지녀야 할 최우선 덕목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기준이 바뀌지 않는 엄정함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전북 지역 교육계에서 불거진 교원단체 간의 비판적 제언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교원단체의 잣대가 과연 언제나 온전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전교조 전북 지부를 향해 전호성 교육감 체제 이후 인사와 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과거 서거 전 교육감 시절과 비교해 사뭇 달라졌다며 ‘원칙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 서거식 교육감 재임 당시 파견교사 선발 및 장학관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매섭게 문제 삼았던 전교조가, 현 교육감 체제에서 불거진 정책기획과·인권센터 파견교사 공모나 인수위 출신 인사의 공모 선발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학교 가산점 부여에 강력히 반대해 왔던 기조와 달리 유사한 ‘도전학교’ 가산점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자의 교육협력과장 지원 논란 등 도덕성 검증 사안에서 보인 미온적 태도 역시 동일한 지적선상에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사안에 따라 대응 방식과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는 있다. 때로는 대립과 투쟁보다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무적 판단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판의 기준이 ‘어떤 사안인가’가 아니라 ‘누가 교육감인가’에 따라 유연해지거나 무더진다면, 이는 감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권력의 성향이나 정치적 친소관계, 이념적 동질성에 따라 검증의 날이 무더지는 순간, 그것은 건강한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원단체가 특정 진영의 우군(友軍)을 자처하거나 권력과의 관계 형성에 매몰될 때, 그 감시망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교육 행정을 향한 검증 잣대가 진영 논리에 갇히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가장 먼저 교육청의 인사·정책 시스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신뢰가 무너진다.

과거에는 문제시되던 사안이 수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묵인되는 과정을 목도할 때, 현장 교사들은 공정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된다.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학부모와 도민의 의구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교원단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한 비판 의식을 잃고 특정 진영에 유불리한 침묵을 택할 때, 그로 인한 행정적 부실과 정책 왜곡의 피해는 온

전히 일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원단체는 정권이나 교육감의 임기와 상관없이 교실을 지키고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영원한 파수꾼이어야 한다. 교육감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어느 진영 출신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인사·정책·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판의 날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오직 ‘원칙과 상식’이라는 동일한 잣대 위에서 갈라야 한다. 상대를 향한 때만 날카롭고 자신들과 가까운 권력을 향한 때 무더지는 잣대는 교육 현장의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전북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당국의 철저한 자성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는 교원 단체들의 엄격한 자기 고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원단체의 진짜 힘은 세력의 크기나 권력과의 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현장 교사들이 인정하는 ‘선명한 일관성’에서 나온다.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교원단체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를 넘어 참된 원칙과 공정한 검증의 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진영을 불문하고 오직 ‘학생과 교사, 그리고 전북 교육의 미래’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을 때, 교원단체는 도민과 현장으로부터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국립의원 남원 유치, ‘간판만 남원’은 안 된다

박희승 국회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의원원을 남원에 설립하면서 정작 임상교육과 수련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박 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기관 유치 차원을 넘어 국립의원 설립의 본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립의원 남원 유치는 건물 하나를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임상, 수련이 서울에 있고 남원에는 강의실만 남는다면 그것은 국립의원 남원 설립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에서 학생을 뽑아 교육한 뒤 핵심적인 임상과 수련 과정에서 다시 서울로 보내는 또 하나의 수도권 집중이 될 뿐이다.

국립의원 설립의 핵심 목적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과 임상실습, 전공의 수련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사가 지역에서 배우고 환자를 만나고 수련해야 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학교의 주소만 남원에 둔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울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대로 두고 남원에는 국립의원이라는 간판만 주는 식의 절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정책이 결국 수도권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책 자체가 모순이다.

전북도도와 정치권도 지금부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희승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원택 전북도정과 남원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이전은 물론 이에 준하는 국가 거점 수련병원 구축까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국립의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정하기 전에 ‘남원 본원·교육·임상·수련 일체화’를 전북의 협상 마지노선으로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 국립의원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전북 공공의료의 전환점이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이름뿐인 유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남원에는 간판이 아니라 국립의원의 실질적인 본체가 와야 한다.

▲오늘의시

그때 / 김 용 택

저절하고 우울할 때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어딘가 달려가 닿고 싶을 때
파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가면 더욱더

저녁노을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둥근 달을 바라볼 때
무심히 앞산을 바라볼 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깃거를 스칠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ㅣ 독자 투고 ㅣ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CPR)



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 혹은 사고 등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들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조치를 심폐소생술, 즉 CPR이라고 한다. 호흡이 정지한 환자에게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완전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손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인 4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직접 실시해보거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의식 확인, 119신고요청, 흉부압박,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여부를 살펴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음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으로 반복해 실시하는데 119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실시한다. 이때 가슴압박 부위는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에 손을 깎지 낀 채로 대고 팔과 환자의 각도가 수직이 되게끔 손바닥 아래 부분으로 압박하며 실시하는데 분당100회 정도의 속도로 5cm가량 깊이로 강하게 눌러준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후 가슴부위가 숨이 들어가 올라오는 지 확인하며 실시한다.

위급상황 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가족, 내 이웃의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을 잘 기억하자.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사 박재원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 1978.1.14 창간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JBT

전북타임스

전북 1978.1.14 창간

www.jeonbuktimes.co.kr

익산시, '반도체·이차전지' 신산업 투자유치 전력

익산시가 반도체, 이차전지, 식품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2030년까지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기업과 고부가가치 전후방 연관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산업단지 확충·규제 완화·맞춤형 지원체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민관합동 기업유치단 본격 가동

◆ 산업용지 적기 공급...기업 투자유치 기반 강화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률 99%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이룬 익산시는 다음 단계의 기업 유치를 위한 대대적 영토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제3산업 확장부지(27만㎡)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2030년까지 165만㎡ 규모의 제5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신규 조성해, 미래 유망 신산업 기업들을 수용할 큰 틀의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부지 마련을 위해 제1·2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파악해 연계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함열전 문농공단지를 빠르면 8월 중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해 투자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3산업 확장부지(27만 2,815㎡)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21만 9,004㎡) 등 총 41만 9,819㎡ 규모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024년 6월)되면서 투자 유치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기회발전특구 내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강점을 활용해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물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민관합동 기업유치단 가동

아울러 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의 최종 선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동우화인켐과 미원상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지역 핵심 소부장 기업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기업 추가 투자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군산·완주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625만㎡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는 구상이다.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행정과 기업,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3개 분과의 '민관합동 기업유치단'도 본격 가동한다.

민관합동 기업유치단은 △산업용지, 전력, 용수 공급방안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핵심 타깃기업 발굴 및 인적네트워크 확보 △타깃기업 목록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기업과 학계, 시민 등 산·학·연·관·민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검토 단계부터 입지 선정과 투자협

약, 공장 설립, 인력 채용,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 맞춤형 규제 완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제1·2일반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업종을 완화한다.

그동안 제1·2일반산업단지는 입주업종 제한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입주 제한 업종에서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를 해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공장 설립과 가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실무지원단'을 운영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입주 검토에서 건축허가까지의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50% 단축)하고, 유치기업이 지역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해 투자 정보 공유와 공동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진 청년경제국장은 "산업용지 확충과 규제 개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익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제2산업단지

